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조 아 미*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이 분야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자와 예비청소년지도자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은 효과적인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비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직업체험(특히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153명의 4개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학교별, 학년별, 성별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의 전공관련 직업체험 비율과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둘째,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셋째, 예비청소년지도자의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학교별과 성별에 따라 전공관련 직업체험율에 차이가 있었고,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예비청소년지도자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은 관심의 대상이기 마련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육하는 데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미하다. 게다가 청소년의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비해 비정규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부족한 형편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제한적이다(조아미, 1998; 권두승, 2000; 김진화, 2000). 청소년교육의 질을 고려해 본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명지대학교 교수

청소년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지도자가 될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자는 목소리만 높지 실제로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혹은 담당하게 될 교육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자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교육자의 질이 높을수록 그가 담당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비교육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이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을 진로 의사결정에 응용한 결과 나타난 구인(construct)으로 개인이 교육적 혹은 직업적 정보수집, 목표설정,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 혹은 유능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Peterson, 1993). 진로성숙은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와 대처 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Super, 1957).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정의로 미루어 보면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서로 상관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조아미, 2000).

한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은 직업체험(특히 전공관련 직업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하여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여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Nelsen(1990)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더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대학에 다니면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전공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인 청소년교육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학교별, 학년별, 성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관련 직업체험 비율과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셋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80년대 초 진로 발달 이론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으로부터 출발했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Mazurek & Shoemaker, 1997).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적은 개인일수록 그러한 과제에 참가하는데 실패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수행경험은 그러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경우 이것이 하나의 비교적 일치된 개념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진로성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우선 진로성숙을 Super와 Crites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per(1957)는 진로성숙을 성장기부터 쇠퇴기까지의 진로 발달의 연속선의 관점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두 개의 하위유형이 있다고 했다. 첫째 유형은 인생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에 의해 기대되는 인생단계와 실제 개인이 도달한 실제적 인생단계를 비교하여 진로성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 유형은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발달과업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동일 발달과업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여 성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Crites(1961)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단계에 대하여 현재 그 직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상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진로성숙을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기학(1997)은 진로성숙을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결정성 차원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준비성 차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낸다. 독립성 차원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그리고 목적성 차원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확신성 차원은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Taylor와 Betz(1981)의 연구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Crites의 진로성숙 이론을 기초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성숙태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Luzzo, 1993a).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특정 영역에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려는 노력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관련있는 변인을 연구하거나

척도의 타당성 혹은 신뢰성을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소홀했었다. Luzzo(1993비)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 진로성숙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조아미(2000)도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두 변인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 전공관련 직업체험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그리고 진로성숙의 관계

전공관련 직업체험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그리고 진로성숙은 이들의 개념 정의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지금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업체험으로서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하는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은 그들의 미래 진로와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체험은 그들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성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청소년들이 하는 직업체험활동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직업체험활동은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이미 진로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개인이 실제로 그와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공관련 직업체험을(related) career experience라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Nelson(1990)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elson(1990)은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왜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직업에 필요한 기술,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도록 하고, 직업세계의 실정을 잘 이해하도록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기술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Bakar와 McCracke(1994)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농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받는 프로그램(SAE, Supervised Agricultural Experience)과 미래의 미국농부 프로그램(FFA, Future

Farmers of America)에 참가한 경험이 진로성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전자는 진로성숙과 의미있는 관계가 없지만 후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관련 직업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으로 확대해서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혹은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탐색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Blustein, 1989)이나 진로성숙(Wall, 1996)과 관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공관련 직업체험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그리고 진로성숙의 관계를 보면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 수준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전공관련 직업체험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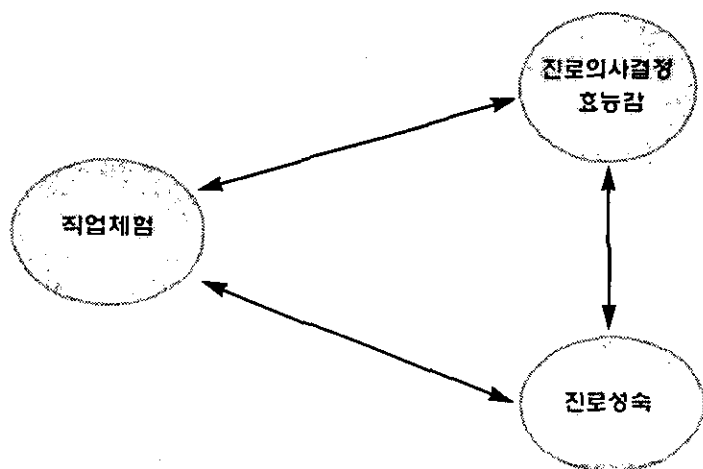


그림 1: 직업체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성숙의 관계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53명의 4개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A대학 51명, B대학 42명, C대학 26명, D대학 34명)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55명, 3학

년이 87명, 그리고 4학년이 11명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41명, 여자가 112명이었다.

조사도구는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척도(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를 사용했고, 진로성숙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검사를 사용했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척도는 Crites의 진로성숙모델에서 제시된 진로선택 능력의 5가지 태도(정확한 자기평가, 목표선정, 문제해결, 직업정보의 수집, 계획수립)를 반영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했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척도는 각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10점 척도의 5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로 의사결정 과업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를 '(0) 전혀 확신이 없다' '(9) 매우 확신이 있다'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50개 문항의 점수를 더한 총 점수는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수준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97(Taylor & Betz, 198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Luzzo, 1993a), 본 연구에서의 Guttman 반분신뢰도는 .90이었다.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는 변별타당도와 공인타당도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이기학의 진로태도검사는 Parsons의 특질-요인이론과 Crites의 발달이론을 동시에 적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검사는 청소년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때 실제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를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차원에서 측정하도록 고안된 도구로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태도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그리고 독립성 .75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섯 개의 하위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는 200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청소년관련학과에서 수집되었고,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χ^2 검증, 상관계수, 최적척도 회귀분석(optimal scaling regression)을 실시했다. 최적척도 회귀분석은 네델란드의 Leiden대학 교수팀들이 독립변수가 명명척도나 서열척도인 경우 별도의 조작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SPSS 10.0 version에 새로 삽입된 프로그램이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과 그에 대한 태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율을 학교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다음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교별

4개 대학에 재학중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을 학년별(2학년과 3학년)로 살펴보았다. 이것을 학년별로 살펴본 이유는 학년과 직업체험 비율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학교마다 응답한 학년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나누어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비율을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분석이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학과 2학년의 경우 전공관련 직업체험율이 비교적 높은 대학은 D대학이었고, 직업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율이 높은 대학은 C대학이었다. 그리고 B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전공관련 직업체험도 하고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도 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1: 학교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2학년)

직업체험 유형 \ 학교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전공관련 직업체험	1 (11.1)	5 (11.9)	0 (0.0)	5 (29.4)
전공비관련 직업체험	3 (11.5)	6 (23.1)	7 (70.0)	3 (17.6)
전공관련 혹은 비관련 직업체험	15 (48.4)	17 (65.4)	3 (30.0)	9 (52.9)
전체	31(100.0)	26(100.0)	10(100.0)	17(100.0)

청소년관련학과 3학년생의 경우 다른 대학에 비해 전공관련 직업체험율이 높은 편인 대학은 2학년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대학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율이 높은 대학과 전공관련 혹은 무관련 직업체험이 높은 대학도 2학년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대학과 B대학이었다.

표 2: 학교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3학년)

직업체험 유형 \ 학교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전공관련 직업체험	3 (18.8)	1 (9.1)	3 (25.0)	7 (50.0)
전공비관련 직업체험	4 (25.0)	1 (9.1)	5 (41.7)	2 (14.3)
전공관련 혹은 비관련 직업체험	9 (56.3)	9 (81.8)	4 (33.3)	5 (35.7)
전체	16(100.0)	11(100.0)	12(100.0)	14(100.0)

2) 학년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학년별로 직업체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학년과 직업체험 유형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2학년보다는 3학년이 전공관련 직업체험률이 높은 반면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률은 낮았다.

표 3: 학년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

직업체험 유형 \ 학교	2학년	3학년
전공관련 직업체험	9 (10.7)	14 (26.4)
전공비관련 직업체험	31 (36.9)	12 (22.6)
전공관련 혹은 비관련 직업체험	44 (52.4)	27 (50.9)
전체	84(100.0)	53(100.0)

$$\chi^2 = 6.89, p < .05$$

3) 성별

성별에 따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기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보다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많이 하는 반면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성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 비율

직업체험 유형 \ 학교	남자	여자
전공관련 직업체험	12 (30.8)	13 (11.9)
전공비관련 직업체험	8 (20.5)	41 (37.6)
전공관련 혹은 비관련 직업체험	19 (48.7)	55 (50.5)
전체	39(100.0)	109(100.0)

$$\chi^2 = 8.59, p < .01$$

4)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재학 중 직업체험이 졸업 후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34.1%) 혹은 '그렇다' (51.6%)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경험하는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후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5: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태도	명	퍼센트
매우 그렇다	43	34.1
그렇다	65	51.6
잘 모르겠다	13	10.3
아니다	3	2.4
전혀 아니다	2	1.6
전체	126	100.0

2.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수준과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6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수준은 이 변인의 범위가 0-450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의 경우 전체 진로성숙의 범위가 47-235인 것을 고려하면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결정성(범위: 10-50)과 확신성(범위: 10-50)은 중간 정도이나 준비성(범위: 10-50)과 독립성(범위: 9-45)은 높은 편이고 목적성(범위: 8-40)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310.30	49.74
결정성	31.73	5.90
목적성	20.44	5.64
확신성	31.65	4.06
준비성	38.82	4.51
독립성	31.16	3.55
진로성숙(전체)	153.81	11.83

2) 관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7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진로성숙(전체)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다. 이것을 진로성숙의 다섯 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고 목적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은 높지만 목적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성숙(전체)과 다섯 개의 진로성숙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진로성숙(전체)는 목적성을 제외한 네 개의 진로성숙 하위영역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진로성숙 하위영역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적성과 결정성, 목적성과 확신성, 그리고 목적성과 독립성은 의미있는 부적 상관이 있고, 목적성과 준비성은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1.00						
② 결정성	.48**	1.00					
③ 목적성	-.37**	-.33**	1.00				
④ 확신성	.54**	.51**	-.34**	1.00			
⑤ 준비성	.32**	.20*	-.06	.29**	1.00		
⑥ 독립성	.41**	.36**	-.40**	.40**	.27**	1.00	
⑦ 진로성숙(전체)	.50**	.70**	.05	.67**	.63**	.53**	1.00

* $p < .05$, ** $p < .01$

3. 직업체험이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적척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의 표준화계수(β)가 .228로 비교적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최적척도 회귀분석에 의한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R^2	Adj R^2	β	F	sig
.052	.046	.228	8.246	.005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진로성숙의 다섯 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체험이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영역 모두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전체 변량과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변량의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은 결정성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진로성숙의 하위영역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확신성으로 7.9%, 준비성 4.8%, 목적성 4.7%, 독립성 1.9%의 순이었다. 표준화계수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정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고 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은 진로성숙 중에서도 결정성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독립성에는 적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최적척도 회귀분석에 의한 직업체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R^2	Adj R^2	β	F	sig
결정성	.106	.100	-.325	17.821	.000
목적성	.053	.047	.230	8.434	.004
확신성	.085	.079	-.291	13.981	.000
준비성	.054	.048	-.232	8.625	.004
독립성	.025	.019	-.159	3.897	.050
진로성숙(전체)	.079	.073	-.280	12.894	.0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학교별, 학년별, 성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관련 직업체험 비율과 재학 중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셋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별로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전공비관련, 전공관련/비관련 직업체험율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2학년과 3학년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D대학의 경우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전공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C대학의 경우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율이 높았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처럼 대학마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각 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향상을 위해서 각 청소년관련학과에서는 이들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년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전공비관련, 전공관련/비관련 직업체험율을 보면 2학년보다 3학년이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많이 하는 반면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업체험은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지도자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이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관련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업체험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성별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전공비관련, 전공관련/비관련 직업체험율을 보면 남자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이 여자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보다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더 많이 하고 전공과 관련없는 직업체험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재학 중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을 85.7%

함으로써 직업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학교나 학과 차원에서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진로성숙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 진로성숙(전체)과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지만 이것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면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인 목적성과 의미있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다른 하위영역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은 증가하지만 목적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을 주로 전체적으로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이 관계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성격은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언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라는 직업을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현명한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 에 직업체험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거나 그러한 활동을 재학 중에 격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직업체험이 진로성숙의 다섯 하위영역 모두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중에서도 결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과연 청소년지도자라는 직업에 적합한지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선택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전공관련 직업체험을 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이 직업체험과 직업체험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신감, 기술,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지도자로서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Krumboltz 등(1976)은 특정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의 경우 개인은 그 직업에 대한 흥미나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잘하면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 직업을 선호하고 그 직업에 흥미를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관련 직업체험 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관련 직업체험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로 하여금 과연 청소년지도자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렇다는 결론을 얻은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들은 아마도 다른 진로에 대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건강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소년지도자를 하면서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미리 자신이 청소년지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나 사회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두승(2000). 청소년지도자의 철학적 태도와 지도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정책 전문연구.
- 김진화(2000). 청소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 113-130.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27-136.

- 조아미(1997). 청소년지도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 *사회교육학연구*, 3, 209-230.
- (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 43-62.
- Bakar, A.R. & McCracke, J.D.(1994). Youth organization and supervised agricultural experience participation as predictors of the career maturity of agricultural education student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69 917).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tz, N. E. & Hackett, G.(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13-428.
- Betz, N.C. & Voyten, K.K.(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etz, N.E. & Klein, K.L.(1996).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career self-efficacy, generalized self-efficacy, and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85-298.
-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Crites, J.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Krumboltz, J.D., Mitchell, A.M., & Jones, G.B.(1976).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71-81.
- Luzzo, D. A.(1993a).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 137-142.
- Luzzo, D. A.(1993b).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5.
- Luzzo, D.A.(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 Mazurek, N. & Shoemaker, A.(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 Nelson, K.K.(1990). How relevant career experiences influence career decision making.(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3 305).
- Peterson, S.L. (199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and academic integration of underprepared college students: Variations based 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8, 77-115.
- Super, D.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Wall, J.E.(1996). ASVAB Career Exploration Program: Impact of student career development.(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0 461).

ABSTRACT

The Effect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mong Prospective Youth Leaders

Cho, A-m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ratio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in terms of school, grade, gender, and the degree of helpfulness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 (3) the effect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were 153 college students who majoring in youth or youth leadership from 4 colleges. They were 55 sophomores, 87 juniors, and 11 seniors. Male students were 41 while female students were 112.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CDMSE) developed by Taylor and Betz(1983) was used to measure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The Career Attitude Scale developed by Lee(1997) was to chosen to measure career maturit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according to school and gender.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was correlated with career maturity. Third,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had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 Myongji University